

## ▶ 소- 초유로 질병예방하기

초유는 각종 영양소함량이 높고 지방의 소화속도와 태반배설을 촉진시키며, 어린 송아지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면역물질이 들어 있다. 이때 초유를 먹이는 시간은 송아지 출생 후 빠를수록 좋으며, 늦어도 생후 4시간 안에 초유를 섭취토록 하여 대부분이 항체 기 흡수되도록 해야 하는데 송아지에게 이행된 면역항체의 효력은 생후 2개월간 지속된다. 한편 초유 중 항체의 종류는 아미노의 실병 검역이나 집종된 예방백수 위,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나이, 고온 스의 초유가 아미노의 초유보다 항체 함량이 2배 정도 높다.

### • 활용방법

- 포유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반식으로 활용 : 암소비용 순화산자; 연상, 2~3산 이전 - 4~5산 이후
- 포유능력이 없는 아이소는 코타수시 인공포유 실시 : 포유회수 및 포유량은 1일 3~4회, 1회 500~800ml, 어미소 부정 후 순삭유에 의한 포유
- 첫소 초유 냉동 저장 후 이용 : 1회분 500~800ml 단위로 냉동저장, 38~40℃ 중탕 가열 후 급여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한우자료실〉

## ▶ 돼지- 여름 관리가 한해 성적 좌우

- 임신 또는 이동 : 쿨어정일 관리; 새벽 1차 0주에 실시
- 분만사 입식시 약용수시, 구충 / 분만전 사료조절 : 분만에정일 5일전부터 사료량 감량
- 분만시간 절약 : 온도관리제를 활용해 분만시간 단축
- 분만 후 처치 : 분만 후 24~48시간 사이에 PGF2α를 주사해 후산 배출 및 저산능 예방
- 분만 후 광범위 항생제 치지
- 분만 후 사료조절 : 단계적 승강, 분만사 사료급여표 활용 / 처평점 상태에 따른 이유일령 조절
- 포유모돈에게 인영일 사료 급여 / 분만 후 10일간 아침, 저녁 물을 별도로 공급
- 구충양양제 급여 : 비타민, 미네랄 보충, 비타민 A,D,E제제
- 식욕부진 모돈 : 강제급수, 약성사료 급여, 영양제 주사, 흡생제 주사
- 신선한 인공수정 생액 사용 / 정액은 즉시냉동이 되지 않,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
- 성약 보급기에 온도계를 비치해 수시로 보관 온도 확인
- 종유두수 : 송부두수율 평소보다 10~20% 늘릴 수 있도록 주의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 양축정보〉

## ▶ 닭- 시산시기 조절

### • 큰 난중을 원할 경우

산란사육 점등일 목표 체중에 도달해커라도 사직하지 않고 로판 코어트로 경우 체중 1,400~1,450g에, 하이라인의 경우 체중 1,500~1,550g에 산란점등을 시작한다. 산란사육 점등시기를 늦추어 주면 일평생 난중은 더 커지게 된다. 이때 산란초기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양소 수준을 높여주는 것도 크기 난중 증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높은 영양수준의 사료만 계속 급여할 경우 난중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서 알생애 문제들이 있으므로 목표로 하는 난중에 도달한 이후에, 주중에 알맞은 영양수준으로 낮추어 주어야하며, 난중을 높이는 만큼 산란율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작은 난중을 원할 경우

산란사육 점등일 목표의 경우 새중 1,300g, 하이라인의 경우 새중 1,400g에 실시하여 초산을 앞당긴다. 일평생 난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될 수 있다. 난중을 너무 크지 않게 유지하려면 농약성과 농약강도도 보다 오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난 중간의 가격 차이가 적거나 규남/유봉 등 대리를 많이 생산해야하는 농장이면 산란사육 점등을 앞당겨 사료를 빠르게 하는 것과 추경별로 알맞은 영양수준을 공급하여 난중이 커지는 것을 산란초기부터 관리해야한다.

〈월간 양계 2009년 3월호〉